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 안상열 재정관리관,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신청주분기) 방문
-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57.0%, 37.6조원) 달성을 위해 한전의 적극적인 투자집행 당부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17(월) 신청주분기 전력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한전의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하였다.

전력구란 전력 공급을 위한 전선과 장비가 설치된 지하시설로, 지상의 송전탑과 마찬가지로 전력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신청주분기 전력구*는 화력·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진천·음성 등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 사업기간 '18.10월~'25.6월, 총사업비 704억원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공사 현황에 대해 논의하면서 동 전력구가 올해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추진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더불어, “주요 공공기관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57.0%, 37.6조원)을 수립한 만큼, 계획 규모가 큰 한전의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전이 추진 중인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 선로(HVDC) 건설 1단계 사업 등 송배전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도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책임자	과 장	이민호 (044-215-5630)
		담당자	사무관	서혜경 (future2023@korea.kr)